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2019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인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내나라 인생여행'이라는 주제로 전국 곳곳의 야경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자리로, 김제시는 벽골제 경관조명을 필두로 하여 금산사와 망해사, 아리랑문화마을,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등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오는 9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사전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김제시가 가진 농경문화라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초가집을 재현한 홍보부스, 지평선 쌀로 만든 누룽지 시식 코너, 목공예·압화공예·매듭공예 등 전통공예 체험 실시로 관광객에 오감만족 관광지로서의 김제시를 알리고자 한다.

양문엽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수많은 관광객과 여행사가 참여하는 박람회인 만큼 김제시의 차별화된 농경문화 콘텐츠와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려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김제시는 2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관내 다중밀집시설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오투아일랜드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서문시장 화재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 잇달아 다중밀집시설에 발생했던 대형 재난 사고를 교훈삼아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비상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준배 시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김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선정

전국 31개 지자체 중 '상'으로 선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이란 지역의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의 순환에 걸친 모든 단계별 활동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로컬푸드·공공급식·학교급식 등) 체계로 전환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으로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 내 공공급식,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 주요 수요처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지역일지리를 창출하고 차별없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시민과 소비 관계시장 등에서 먹거리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역농식품 공급비중이 적고 참여농가가 미흡한 실정에서 김제시 조직개편 등의 짧은 시간동안에 "김제 푸드플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는 정선호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전국 3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김제시는 도농복합형, 최종 지자체 평가결과 등급 상·중·하에서 '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푸드플랜 중장기(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정부의 먹거리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하반기 부터 추진해온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기존 유통식품과를 먹거리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푸드플랜팀과 로컬푸드팀을 신설하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은 "농업인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기를 희망한다면서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영역만큼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형 공공형 운영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생산-공급-소비의 공공형 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주군은 먹거리정책과를 중심으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식생활, 영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과 단계에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농토피아 완주' 실현

완주군, 먹거리 관련 사업 지원 '먹거리정책과' 신설

완주군이 먹거리 관련 사업을 집적화해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한다.

완주군은 먹거리정책과를 중심으로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식생활, 영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과 단계에서 푸드플랜, 식품가공, 로컬푸드, 식품산업, 위생안전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했다.

먹거리정책과에서는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급식 확대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생산지원 ▲건조채소, 생강 명품화 사업 등 특화 가공산업 전략육성, 가공창업 ▲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가공품 마케팅 지원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확대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외식창업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안전한 먹거리 위생안전 등을 역점으로 추진한다.

우선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급식관련 가공식품을 전략적으로 발굴 육성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품목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 운영과 발굴로 먹거리 가공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완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식품조작업성, 치유농장활성화, 밀기트 및 기능성식품 개발, 미니팜 공유사업, 테라피센터조성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까지 4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완주신활력플러스추진단을 구성해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신규조직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 큰 꿈을 키워주길"

전북은행,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6천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2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 관계자들이 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준배시장을 비롯하여 이상란 부행장 등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란 전북은행 부행장은 "김제 지역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래 큰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사랑장학재단 박준배 이사장은 "이 장학금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김제시의 발전과 인재 양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2일 전북은행 관계자들이 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유일의 향토은행으로 도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기를 추구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은행, 편리하고 친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왔고, 장학금 금으로 선

정된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7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가 하면, 직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열어주고자하는 사회 공헌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목일·한식 대비 산불비상근무 돌입

완주군이 청명·식목일(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경계 강화에 나섰다. 완주군은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해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성묘객, 나들이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황실 근무인원을 두 배로 증원한다.

또한, 순찰 횡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20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마을이장 등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방지 계도활동 중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우식 산림복지과장은 "청명과 한식 전·후로 성묘객 및 나들이객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 현장 배치 등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 예방활동에 민, 관, 구 분없이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